

통신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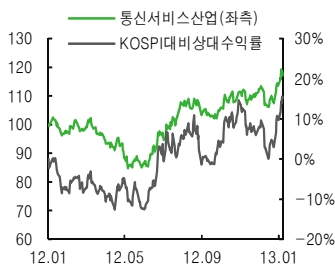
Overweight

[비중확대, 유지]

LTE 무제한. 득과 실은?

김희재 769,3540
khjae@daishin.com

주가수익률(%)	1W	1M	3M	12M
절대수익률	2.8	4.4	6.2	15.1
상대수익률	5.0	6.3	5.0	15.4



투자포인트

- 1/25 LGU+, KT, 1/26 SKT LTE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출시 발표
- 1/31부터 3개월간 한시적인 프로모션 진행 후 연장여부 결정
- LTE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는 상위 1% 헤비유저가 타겟

Comment

LTE 무제한 데이터 시대 개막.

이동통신3사는 모두 LTE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를 출시하기로 발표했다. 소비자들은 1/31부터 가입이 가능하고, 통신사는 4/30까지 3개월간 한시적인 프로모션을 진행한 후 연장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현 상황에서는 LTE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가 소비자에게나 통신사에게나 모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

1/25 오전에 LGU+가 LTE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를 전격적으로 출시했다. 이어서 오후에는 KT가, 그리고 1/26에는 SKT가 유사한 요금제를 출시했다. 3사의 요금제는 모두 비슷하다. LGU+의 요금제를 가지고 살펴보자. 무제한 요금제는 95,000원/110,000원/130,000원의 세 가지로 출시됐다. 월 기본제공 데이터는 각각 14GB/20GB/24GB이고, 기본제공 데이터를 모두 소진할 경우, 일일 3GB까지 LTE 속도로 데이터를 추가로 사용 가능하다. 다시 이를 모두 소진할 경우에는 2Mbps(3G에서의 평균 다운로드 속도 수준)의 속도로 무제한으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다. 완전한 무제한이라기보다는 LTE와 3G의 하이브리드 요금제로 볼 수 있다.

지난 2010년 7월 SKT는 3G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출시한다고 밝혔고, 결국 3사 모두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출시했다. 당시에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55,000원 요금제부터 무제한 데이터 사용이 가능했다. 소비자들은 환호했고, 투자자들은 데이터 트래픽 급증에 따른 투자비 부담과 ARPU 상승에 사실상 ceiling이 가해진 점에 실망했다. 2011년 7월 LTE가 상용화된 이후, 통신사들은 LTE에서는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를 출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LTE 상용화 이후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 결국 그 약속은 깨졌다. 그럼 과거 3G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출시때처럼 소비자들은 환호하고 투자자들은 실망하는 현상이 또다시 벌어질 것인가? 투자자 입장에서 “무제한”이라는 용어는 일종의 트라우마처럼 작용하겠지만, 적어도 지금 출시되는 무제한 요금제는 소비자나 투자자 모두에게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 그 이유는 요금제 수준이 매우 높게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LTE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는 상위 1% 헤비유저가 타겟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의 최소 요금 수준은 매우 높다. KT와 LGU+는 95,000원부터 3가지 요금제를, 그리고 SKT는 109,000원의 한 가지 요금제를 출시한다. LTE 사용자의 ARPU(월평균 사용금액)는 5만원 안팎이다. 약정할인을 감안하면, 평균적으로 62,000원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평균적인 사용금액보다 최소 3만원 이상을 더 지불해야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를 사용할 수 있다.

LTE 기본 요금제와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를 비교해보면, 헤비유저를 대상으로 1만원 가량의 upselling 효과를 노리고 있다고 볼 수 있다. KT와 LGU+ 모두 기본 요금제의 850 상품과, 무제한 요금제의 950 상품은 기본 데이터 제공량이 14GB로 동일하다. 따라서, 월 1만원을 더 지불하면 무제한으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850 이상의 요금제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무제한 요금제로의 이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 기본 요금제의 850 상품에서 제공하는 월 14GB 이상을 필요로 하는 사용자들은 얼마나 될까? 당사의 추정으로는 약 16만명 가량이 타겟고객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무선데이터 트래픽 통계에 의하면, 3Q12 기준으로, LTE 가입자의 상위 1%가 월평균 14.7GB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5%의 사용량은 6.2GB이고, 전체 LTE 가입자의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은 1.7GB이다. 상위 1%면, 현재 LTE 가입자 1,600만명을 기준으로 볼 때 약 16만명 정도이다.

결론적으로, 이번에 출시하게되는 LTE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는 소비자들이 보편적으로 가입하게되는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 환호할 일도, 투자자 입장에서 실망할 일도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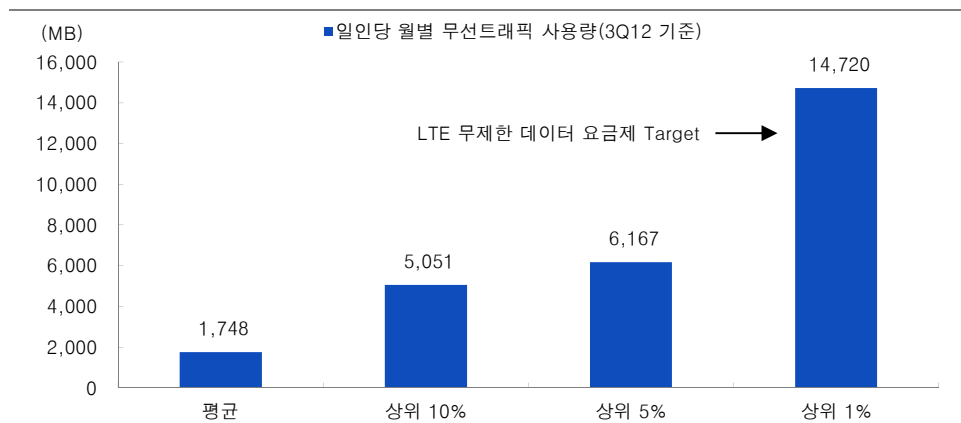
표 1. LTE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출시. 타겟은 85 이상 고 ARPU 고객

(원, 분)

LTE 기본 요금제								LTE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비고
SKT	34	42	52	62	72	85	100	109				
월요금	34,000	42,000	52,000	62,000	72,000	85,000	100,000	109,000			기본 데이터 소진 후 일 3GB 한도로 LTE 속도 제공 초과사용시 2Mbps로 무제한	
음성	120	180	250	350	450	650	1,050	1,050				
Data	550MB	1.1GB	2GB	5GB	9GB	13GB	18GB	18GB				
KT	340	420	520	620	720	850	1000	950	1100	1300	비고	
월요금	34,000	42,000	52,000	62,000	72,000	85,000	100,000	95,000	110,000	130,000	기본 데이터 소진 후 일 3GB 한도로 LTE 속도 제공 초과사용시 2Mbps로 무제한	
음성	160	200	250	350	450	650	1,050	650	1,050	1,250		
Data	750MB	1.5GB	2.5GB	6GB	10GB	14GB	20GB	14GB	20GB	25GB		
LGU+	340	420	520	620	720	850	1000	1200	950	1100	1300	비고
월요금	34,000	42,000	52,000	62,000	72,000	85,000	100,000	120,000	95,000	110,000	130,000	기본 데이터 소진 후 일 3GB 한도로 LTE 속도 제공 초과사용시 2Mbps로 무제한
음성	160	200	250	350	500	750	1,200	1,500	750	1,200	1,500	
Data	750MB	1.5GB	2.5GB	6GB	10GB	14GB	20GB	24GB	14GB	20GB	24GB	

자료: 언론자료인용,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 LTE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Target은 상위 1% heavy user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 Compliance Notice

금융투자업규정 4-20조 1항5호사목에 따라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본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담당자: 김희재)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등급관련사항

- 산업 투자의견**
- Overweight(비중확대): 향후 6개월간 업종지수상승률이 시장수익률 대비 초과 상승 예상
 - Neutral(중립): 향후 6개월간 업종지수상승률이 시장수익률과 유사한 수준 예상
 - Underweight(비중축소): 향후 6개월간 업종지수상승률이 시장수익률 대비 하회 예상
- 기업 투자의견**
- Buy(매수): 향후 6개월간 시장수익률 대비 10%p 이상 추가 상승 예상
 - Marketperform(시장수익률): 향후 6개월간 시장수익률 대비 -10%p~10%p 추가 변동 예상
 - Underperform(시장수익률 하회): 향후 6개월간 시장수익률 대비 10%p 이상 추가 하락 예상